광양시, 귀농·귀어 조기정착 적극 돕는다

시농기센터,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등과 멘토링 협약
교육·현장체험·기술 상담 지원…상생협력 체계 구축키로

광양시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와 귀농어귀촌협회간 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서현필 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장과 황점자 생활개선광양시연합회장, 주정도 광양시귀농어귀촌협회장 등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멘토인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는 멘티인 귀농어·귀촌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멘토들은 농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들에게 작물 재배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술 상담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멘토를 맡게 되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농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농업인 단체로 8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멘토들은 멘티 농장방문과 전화상담 등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해 지역 농어업 발전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서현필 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장은 "지도자 3대 정신인 우애·창조·봉사의 정신으로 광양에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귀농어·귀촌협회간 멘토링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멘토 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농업인한마음대회를 비롯한 각종 농업인 행사에 초청해 회원 간의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귀농어·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

시, 9월분 가격결정협의회 개최

광양시가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4일 광양원예농협에서 2018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위한 9월분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양시,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영양교사, 급식시설, 어린이집, 학부모, 생산자, 공급업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달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물가변동 사항을 고려해 품목별 공급단가를 조정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급식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열려 급식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각 단체 간 협조를 이끌어 내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100%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을 위해 보육시설에서 부담해야 했던 40%를 전액 지원했다.

이상호 광양시 농업지원과장은 "여기 참석한 위원들이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의 품목확대와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추진하는 등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경제청 투자유치 활성화 위해 조직 개편 단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16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중반에 진입함에 따라 청의 무게중심을 투자유치에 두고 투자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는 투자유치에 총력을 쏟겠다는 김갑섭 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유치본부 내 청의 중장기적 투자유치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홍보를 연계하는 투자유치1부와 투자유치 전문업종별 8개의 팀을 신설하여 투자유치 2·3부에 편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투자유치에 최적화 된 조직으로 정비했다.

또 투자유치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중점유치업종 관련 직렬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전까지 개발에 중심을 둔 조직이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투자유치에 중심을 둔 조직으로 재개청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개편을 계기로 청 전직원은 투자유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광양만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서천변 코스모스길에 산책을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 제공〉

서천변 코스모스길 '9월의 걷고 싶은 길' 선정

광양시는 전남을 대표하는 테마별 관광지로 광양읍 서천변 코스모스길이 '9월의 걷고 싶은 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테마별 관광지를 매달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 서천변은 넓은 잔디밭과 동·서천 둘레길을 따라 개나리, 꽃무릇, 백일홍, 금계국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길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양숯불구이축제가 개최되는 9월과 10월에는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서천의 맑은 물과 돌 징검다리, 물레방아, 원두막이 잘 어우러져 추억과 낭만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 광양의 대표 먹거리인 광양불고기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올 가을에는 광양읍 서천변 코스모스길에서 화려하게 수놓은 코스모스 꽃내음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며 새롭게 단장한 불고기테마거리에서 광양숯불구이의 맛도 즐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서는 봄의 전령사인 매화를 소재로 매화축제가 열리는 광양매화마을과 함께 도시민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유명한 백운산자연휴양림 등 총 2곳이 전라남도 대표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보건소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 지원

광양시 보건소는 난임 부부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됐으나 체외수정(신선배아)으로 최대 4회까지만 지원됨에 따라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대상자는 정부지원을 받고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로 수정 시술비 200만원이 1회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법률혼 난임 여성이면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희망자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시술비 추가 지원으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부모들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061-797-4026)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폭염과 싸우는 항만 근로자들 힘 내세요"
여수광양항만공사 현장 방문 위문품 전달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 항만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이하 공사)는 지난 14일 광양항 제품부두 항운노조 회관에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무더위 속에서 근무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위문품 수박 100통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열린 여수광양항만공사 '혹서기 현장 위문' 행사에서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오른쪽)과 이정원 광양항 항운노동조합위원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이날 행사에는 방희석 사장과 길인환 운영본부장, 김한춘 항만운영팀장 등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광양항 항운노조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방 사장 등 공사 임직원은 폭염 속에서 장시간 옥외 노출이 불가피한 항만 현장 근로자에게 산업현장의 열사병 예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무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광양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154kV 변전소 현장을 점검하고 변전소 근로자들도 격려했다.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도로, 전력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는 광양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폭염 기간 동안 건설현장 공사 중지 및 점검, 도로 살수, 임시휴게소 운영 및 화물차 운전자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 주거환경개선사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 매주 토요일 음 · 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중흥동 270-15)
연 락 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웅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